



국제통화기금(IMF),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6년 세계 3.3%, 한국 1.9%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19일(월) 18시30분(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4시30분) '26.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主)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요인과 AI 투자급증,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여건 등의 상방요인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25.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 '26년은 0.2%p 상향한 3.3%로 조정하였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7%로 수정되었으며, '26년 성장률은 0.2%p 상향한 1.8%로 예측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25년 2.1%, '26년 2.4%)의 성장률은 재정부양 및 금리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압력 완화, 양호한 '25.3분기 실적과 섣다운 이후 회복세 시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5년(+0.1%p) '26년(+0.3%p) 모두 상향 조정되었다. 유로존(1.4%, 1.3%)의 경우 높은 에너지비용 및 유로화 절상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부양,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25년(+0.2%p), '26년(+0.2%p) 성장률 모두 상향되었다. 일본(1.1%, 0.7%)의 경우 새정부의 경기부양 대책 효과로 '26년 전망이 소폭 상향(+0.1%p)되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25년 및 '26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상향하여, 10월 전망 대비 0.1%p씩 개선된 1.0%, 1.9%로 각각 전망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6년 성장률 전망(1.9%)은 선진국 평균(1.8%)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 글로벌 기관의 '2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1월IMF)1.9, (25.12월OECD) 2.1, (1월B 평균)2.0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의 '25년, '26년 성장률은 각각 0.2%p씩 상향된 4.4%, 4.2%로 전망되었다. 중국(5.0%, 4.5%)은 재정부양 및 미국의 관세유예 효과로 '25년 '26년 각각 0.2%p, 0.3%p 상향 전망하였으며, 인도(7.3%, 6.4%) 역시 3·4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로 각각 0.7%p, 0.2%p 상향 전망되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의 경우 에너지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5년 4.1%, '26년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경우 관세의 물가 전가효과로 2% 목표 달성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은 현재의 낮은 물가 수준이 점차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물가상승률(%): ('25) 4.1 → ('26) 3.8 → ('27) 3.4

↳ (선진국) ('25) 2.5 → ('26) 2.2 → ('27) 2.1 (신흥개도국) ('25) 5.2 → ('26) 4.8 → ('27) 4.3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AI의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다만 무역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www.imf.or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배경화 (044-215-4810)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	담당자	사무관	권혁률 (bamryul@korea.kr)



참 고

'26.1월 IMF 세계경제전망

(단위 : %, %p)

	'24년	'25년			'26년		
		'25.10월 전망 (A)	'26.1월 전망 (B)	조정폭 (B-A)	'25.10월 전망 (C)	'26.1월 전망 (D)	조정폭 (D-C)
세 계	3.3	3.2	3.3	0.1	3.1	3.3	0.2
선진국	1.8	1.6	1.7	0.1	1.6	1.8	0.2
미국	2.8	2.0	2.1	0.1	2.1	2.4	0.3
유로존	0.9	1.2	1.4	0.2	1.1	1.3	0.2
독일	△0.5	0.2	0.2	-	0.9	1.1	0.2
프랑스	1.1	0.7	0.8	0.1	0.9	1.0	0.1
이탈리아	0.7	0.5	0.5	-	0.8	0.7	△0.1
스페인	3.5	2.9	2.9	-	2.0	2.3	0.3
일본	△0.2	1.1	1.1	-	0.6	0.7	0.1
영국	1.1	1.3	1.4	0.1	1.3	1.3	-
캐나다	2.0	1.2	1.6	0.4	1.5	1.6	0.1
한국	2.0	0.9	1.0	0.1	1.8	1.9	0.1
기타 선진국	2.3	1.8	1.8	-	2.0	2.0	-
신흥개도국	4.3	4.2	4.4	0.2	4.0	4.2	0.2
중국	5.0	4.8	5.0	0.2	4.2	4.5	0.3
인도	6.5	6.6	7.3	0.7	6.2	6.4	0.2
러시아	4.3	0.6	0.6	-	1.0	0.8	△0.2
브라질	3.4	2.4	2.5	0.1	1.9	1.6	△0.3
멕시코	1.4	1.0	0.6	△0.4	1.5	1.5	-
사우디	2.6	4.0	4.3	0.3	4.0	4.5	0.5
나이지리아	4.1	3.9	4.2	0.3	4.2	4.4	0.2
남아공	0.5	1.1	1.3	0.2	1.2	1.4	0.2

* 41개 선진국중 G7 및 유로존 국가 제외